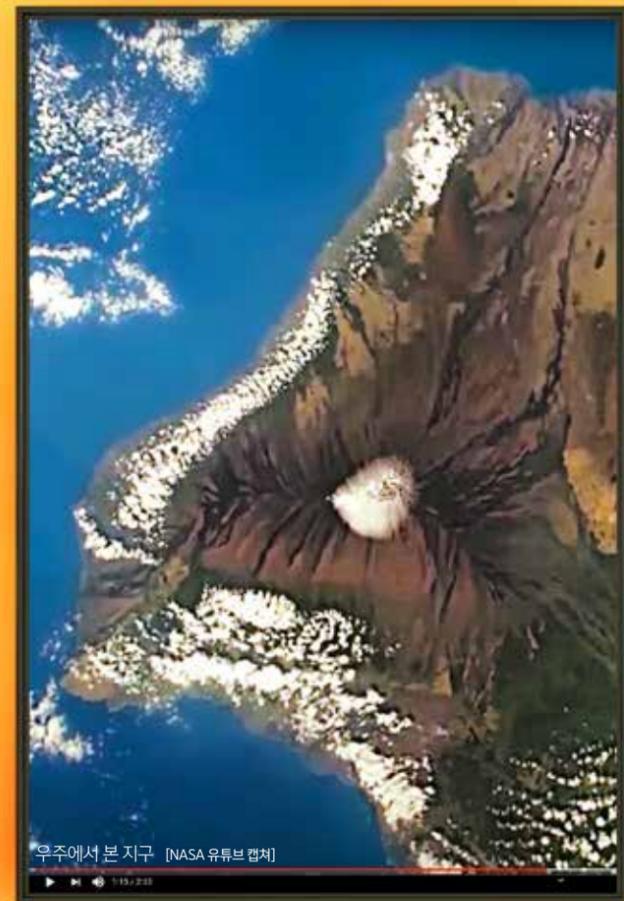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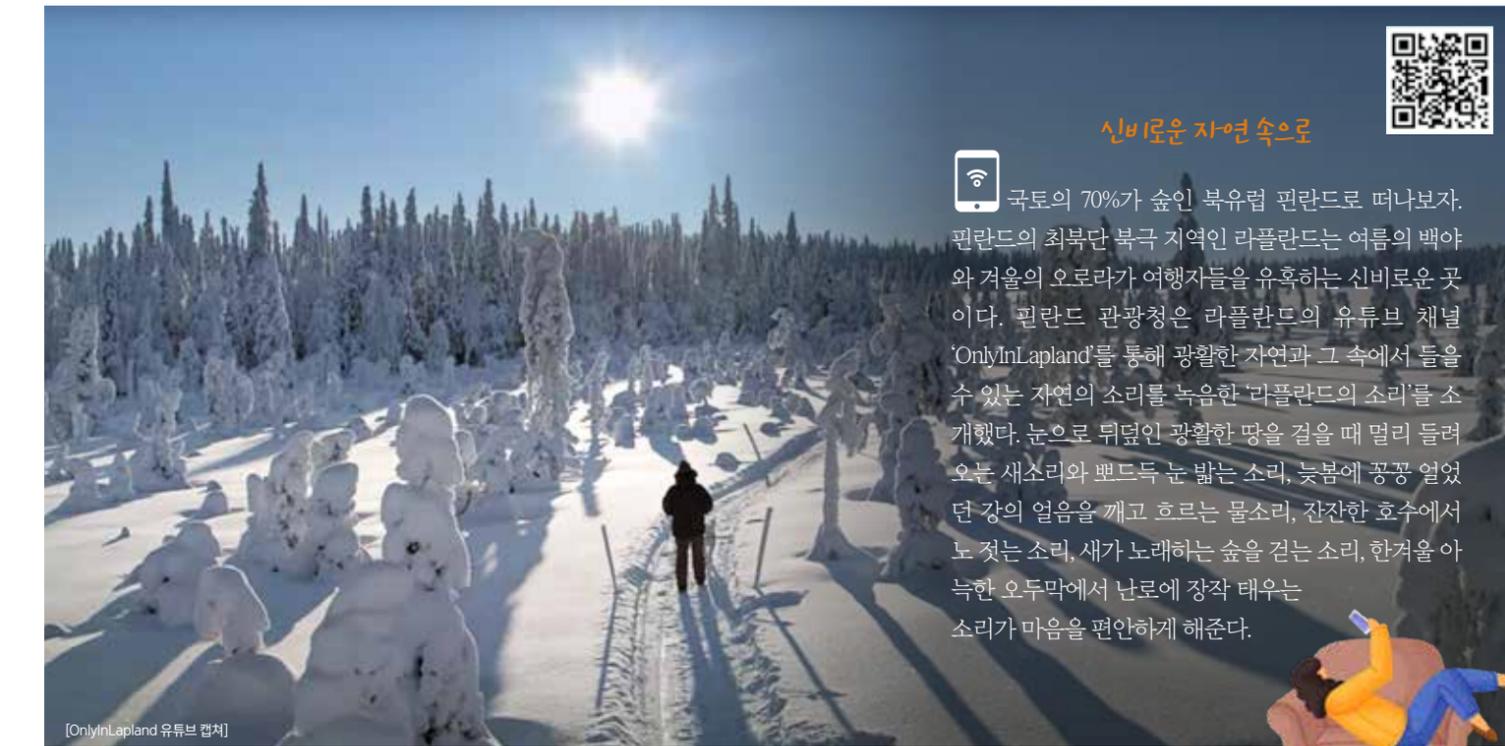
역병의 시대 슬기로운 집콕생활

여행은커녕, 집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조심스러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사태가 더욱 심각한 해외로의 여행은 당분간 가망이 없어 보인다. 날씨가 좋다고, 답답하다고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담보로 뛰쳐나가고픈 욕망은 잠시 접어두자.

글 한미희 기자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여행자들은 일단 지난 여행의 사진들을 꺼내 본다. 아름다웠던 풍경과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리는 것으로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랜다. 더 이상 달래지지 않을 만큼 아쉬움이 커질 땐, 새로운 여행을 계획한다. 새로운 여행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대리 만족을 줄 콘텐츠는 온라인 세상에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신비로운 자연 속으로

☎ 국토의 70%가 숲인 북유럽 핀란드로 떠나보자. 핀란드의 최북단 북극 지역인 라플란드는 여름의 백야와 겨울의 오로라가 여행자들을 유혹하는 신비로운 곳이다. 핀란드 관광청은 라플란드의 유튜브 채널 'OnlyInLapland'를 통해 광활한 자연과 그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를 녹음한 '라플란드의 소리'를 소개했다. 눈으로 뒤덮인 광활한 땅을 걸을 때 멀리 들려오는 새소리와 빠드득 눈 밟는 소리, 늦봄에 꽂꽂 얼었던 강 얼음을 깨고 흐르는 물소리, 잔잔한 호수에서 노 젓는 소리, 새가 노래하는 숲을 걷는 소리, 한겨울 아늑한 오두막에서 난로에 장작 태우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세계 최고의 공연을 안방 1실에서

☎ 시간이 없어서든, 돈이 없어서든, 관심이 없어서든, 어쨌든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최고 수준의 공연들을 안방에서 접할 수 있다. 극장 문을 닫은 공연 단체들이 극장으로 모일 수 없는 팬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공연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회성의 이벤트들도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비대면) 문화는 공연계에서 가장 빨리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베를린필하모닉의 디지털콘서트홀에서는 600여개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애초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월 말까지 30일 무료 티켓을 제공했다. 로열오페라하우스 역시 금요일마다 '오페라하우스를 당신의 집으로'(#OurHouseToYourHouse)라는 해시태그 아래 오페라와 발레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그외의 수많은 클래식 공

연 스트리밍 서비스는 영국 클래식 전문 라디오 클래식FM이 총정리(www.classicfm.com/music-news/live-streamed-classical-music-concerts-coronavirus/)했다.

뮤지컬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도 지난 4월 3일 유튜브 채널 '더 쇼 머스트 고 온!(The Show Must Go On!)을 개설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한국시간 토요일 새벽) 자신이 제작한 뮤지컬 실황을 공개하고 있다. '요셉 아메이징',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이어 18일 공개한 2011년 런던 로열 앨버트 홀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에는 전 세계 1천만명의 관객이 찾았다.

4월 18~19일 예정됐던 서울 공연 대신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공개한 방탄소년단(BTS)의 언택트 공연 '방방콘'(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은 조회 수 5천만건, 최대 접속자 수 224만명을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새 앨범 준비 과정 등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베를린필하모닉 [AP=연합뉴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에스엔코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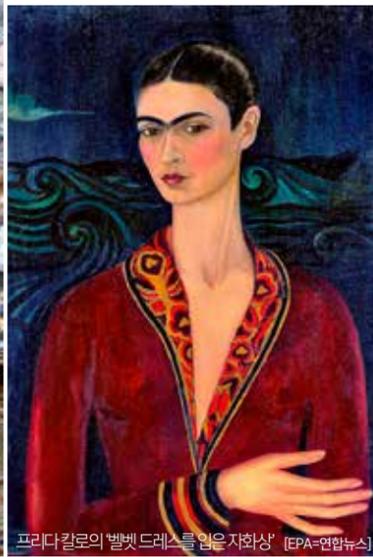
따로 또 같이 즐기는 축제

스위스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은 매년 7월 열리는 축제를 올해는 취소했다. 53년 역사를 자랑하는 페스티벌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레이 찰스, 마빈 게이, 딥 퍼플, 카를로스 산타나, 필 콜린스, 패티 스미스 등을 포함해 50개의 페스티벌 공연 영상을 공연 스트리밍 사이트 'Stingray Qello'에서 한 달 동안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음악 축제 '해브 어 나이스 데이'(Have A Nice Day)가 지난 4월 한차례 공연 일정 연기 끝에 결국 오프라인 공연이 취소됐다. 주최 측은 관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무료 온라인 생중계 페스티벌 '온 유어 핸드'(On Your HAND)로 전환하고 출연진과 공연 방식, 중계 채널을 논의 중이다.



2019년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애니타 베이커 [EPA=연합뉴스]



미술관 세계 여행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제대로, 충분히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림은 생각보다 작고, 작은 그림은 수많은 사람의 머리통과 머리위로 치켜든 휴대전화, 카메라에 가려져 있다. 웬만한 덩치와 추진력이 아니고서는 그 무리를 헤치고 그림으로 다가가기 쉽지 않다.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며, 고개를 한껏 젖힌 채 짧은 시간씩 지나쳐야 하는 시스티나 성당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는 바티칸 박물관 홈페이지(www.museivaticani.va)에서 버추얼 투어(virtual tour)나 영상으로 더 잘 볼 수 있다.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이 제공하는 별도의 앱 '모나리자:비욘드 더 글래스'(Mona Lisa: Beyond the Glass)에서 더 제대로 만날 수 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비나미술관은 2012년 이후 열린 29개의 전시를 모두 가상현실(VR) 영상으로 구축해 뒀다. 양과 질에서 루브르나 바티칸 뮤지엄을 능가한다.

구글의 아트 & 컬처(artsandculture.google.com)에서는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은 40개국 151개 미술관 소유의 작품 3만여점을 고해상도로 감상할 수 있다. 파리 오르세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MOMA), 네덜란드 반고흐 미술관,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멕시코 프리다 칼로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EPA=연합뉴스]

에어비앤비 체험도 온라인으로

전 세계 현지인과 여행자를 연결하는 숙박·체험 플랫폼 에어비앤비도 온라인 체험을 오픈했다. 요가, 요리, 홈트레이닝처럼 유튜브만 검색해도 무수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체험도 있지만, 흔치 않은 체험들도 눈길을 끈다.

'체르노빌의 견공들'은 1986년 핵 재난 이후 30년 넘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버려진 개들을 만나 먹이를 주고 치료하는 현장을 함께 할 수 있다. 영국의 트라이애슬론 2연속 금메달리스트인 앨리스터 브라운리,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로렌 김스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도 호스트로 나섰다. 암스테르담의 비밀 재즈 클럽,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수업,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의 워크숍 등 당장 찾아갈 수 없는 여행지의 매력을 미리 맛보는 것도 좋겠다.



[에어비앤비 제공]

지구도 좁다...나사와 함께 우주로

온라인 세계를 여행하기에는 지구도 좁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집에서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나사 앳홈'(NASA at Home) 서비스(www.nasa.gov/specials/nasaathome)를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 팟캐스트, 전자책, VR 투어,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주를 경험할 수 있다.



Canada Aurora Borealis

우주에서 본 캐나다의 북극광 [NASA 유튜브 캡처]

국내 온라인 공연, 전시 정보는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https://www.culture.go.kr/index.do)에서는 국공립 문화예술단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전시, 공연, 도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찾아 즐길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국립발레단과 오페라단, 서울예술단 등을 망라한다.

